

인류의 영적 미래에 대한 확신

제임스 레드필드 지음 「천상의 예언」

제임스 레드필드의 「천상의 예언」(한림원)은 단순한 소설적 기교와 재미만으로 일반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.

물질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의 습득을 통해 천국에 이르게 되리라는 환상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문서의 출현을 계기로 이 책은 시작된다.

이 책은, 아홉개의 통찰력에 의하여 인간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질적으로 비약된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고문서의 내용을 단계적인 사건을 통해 주인공이 습득하게 한다.

특히 첫번째 통찰력에서 삶을 신비롭게 진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된 주인공이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주위의 사물(인간도 포함)과 교류함으로써 결국 진화의 최고 단계인 인간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.

또한 그것은 바로 인간정신의 성숙을 나타내며, 이 과정이 고요됨으로써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.

이 책은 번역 출판된지 얼마 안됐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세기말 인류가 지닌 불안감에 기초한 예언이라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.

특히 아홉개의 통찰력 내용이 진지할 뿐 아

니라 사상적으로도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.

그리고 저자가 인간의 잠재력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해왔고 청소년의 정서장애 치료에 관여해왔다는 것이 책의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.

아무튼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일반 소설처럼 쪽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주위 현상과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 분석하게 만든다는 것과 그 비교가 결코 헛된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 있다.

그러나 이 책의 단점으로는 내용면에서 아홉번째 통찰력까지의 전개가 잘 이루어지다가 끝에 가서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한다는 점(물론 작가의 열번째 통찰력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긴 하지만)과 오자가 눈에 자주 띄고 부호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.

하지만 「천상의 예언」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며, 인류의 영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이 줄 수 있는 큰 즐거움이다.

박준필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4-4 꽃마을B/D·대학생

스러져가는 생명의 아름다움

현기영 지음 「마지막 테우리」

지금까지 상재한 두 권의 소설집과 두 편의 장편소설을 놓고 본다면 작가 현기영을 두고 감히 '제주도 작가'라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. 그만큼 그는 소설의 제재를 자신의 육체적 고향, 제주도에서 찾고 있다. 그 고집스러운 집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도하면 떠올리는 '환상적인 곳'으로서의 그 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 그 섬에서 일어났던 '4.3사건'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.

지난 7년여간 발표한 중단편들과 그의 장편소설 '변방에 우짖는 새'를 각색한 회곡 한편을 묶은 「마지막 테우리」(창작과비평사) 역시 그런 작가의 고집이 배어 있다.

하지만 비슷한 제재를 취했음에도 이 소설집은 이전의 소설집과는 다른, 작가의 변모를 보여준다. 이전의 소설집들 「순이 삼촌」과 「아스팔트」가 '4.3사건'을 소개하거나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면, 이번 소설집은 '원혼'을 통해 피해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려 하고 있다.(목마른 신들) 그래서 그 한풀이는 '고향'이란 작품에서 '잊어버리자고 했고 또 잊고 살아온 고향'으로 작중 인물을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고 있다.

이런 작가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주목해 볼 만한 작품으로 '쇠와 살'과 표제작 '마지막 테우리'가 있다.

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도 드러

나듯 '4.3사건'의 가해자(쇠)와 피해자(살)를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 '쇠와 살'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서 주목된다. 현기영이 그간 전통적 리얼리즘의 기법에 천착해 소설을 써 왔던 대표적 작가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26개의 소제목에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소설은 새로운 형식을 찾기 위한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소설인 것이다.

'쇠와 살'과는 달리 '마지막 테우리'는 단편소설의 진수를 맛보게 해 준다.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도 목장에서 소를 지키는 한 노인의 생애를 통해 '스러져가는 생명이 마지막으 로 발산하는 아름다움'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. 그 노인에게 있어 소가 그 자신에 닮아 나듯 골프장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초원이 제주 자연만이 아닌 전 한반도의 문제라 할 때, 현기영의 소설이 편협된 제주도에서 벗어나 보편화의 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또 그 노인이 목장을 떠나지 못하듯 자신의 문학에서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작가 현기영 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'마지막 테우리'가 아닐까. 이 작품집을 읽으며 내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다.

강영훈

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90-42·대학생

편집 · 사식 · 출판 대행

110-240
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39-1 동신빌딩 201호
전화 / 737-2308 737-2309 팩스 / 737-2309



“ 편집 · 사식 대행업체는 많습시다.

그리고

편집 실무자들의 불만 역시 많습시다.”